

### ‘나와 《길림신문》’ 원고 모집 통지

40년 발자취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채워주세요!

2025년은 《길림신문》 창간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의 민족정책의 따뜻한 해빛 아래 《길림신문》은 창간 이래 독자 여러분과 함께 수많은 이야기와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이 특별한 해를 기념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담은 ‘나와 《길림신문》’ 주제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길림신문》과 함께하면서 인상에 남았던 이야기들을 2,000자 좌우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고는 매일 (2517740538@qq.com) 혹은 위챗 (15585581908) 을 추가하여 보낼 수 있으며 원고에 ‘나와 《길림신문》’이라고 밝혀야 합니다.

원고 접수 기일: 4월부터 10월까지 — 《길림신문》 편집부

### 【나와 《길림신문》】

## 《길림신문》은 진정 나의 스승이고 도사였다

◎ 신기덕

어제 (4월 1일) 가 바로 《길림신문》 창간 40돐이 되는 날이다. 나는 오늘 오전 시간을 리용하여 위챗계정에 오른 《길림신문》 관련 내용들을 대부분 읽었다. 세월이 빠르기도 하다. 《길림신문》도 이젠 중년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 40년간 신문사는 참으로 힘겨운 창업의 길을 걸으며 실로 많은 일들을 해냈다.

장춘에서 오래동안 사업하고 생활해오면서 나는 《길림신문》과 《장백산》잡지의 ‘신세’를 많이도 졌다. 이 글에서는 제목에 맞게 《길림신문》과 관련된 내용만을 적는다. 《길림신문》은 너무나 오래 접착하여 잘 알기에 어찌 보면 오랜 친구와도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좀 깊이 생각하면 《길림신문》은 진정 나의 스승이고 도사였다.

내가 연변 1중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문학의 초행길을 아장아장 걸을 때 《길림신문》사 문예부의 분들은 모두가 나의 문학스승이고 향도자였다. 하루강까지 밤 무서운 줄 모른다고 나는 모양새가 말이 아닌 졸작을 들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하루건너 문예부를 찾아다녔다. 나는 그분들의 가르침과 관심 속에서 점차 문학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이미 수필도 200여편 쓰고 수필집도 출간한 상태이다.

그리고 길림성교육학원 민족교육부에서 사업할 때 《길림신문》사의 요구에 따라 교육교수와 관련된 ‘인성교육’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시간이 4년 반이던 긴 시간이었었고 칼럼의 편수도 110여편이었다. 한가지 칼럼을 4년 반이던 긴 시간 동안 발표한 사

람도 필경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퇴직한 후에는 신문사의 요구에 따라 24 절기의 글을 쓰기 시작하였는데 ‘보는 24절기’ 글 24편과 ‘듣는 24절기’ 글 24편을 발표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우리의 명절과 기념일’이란 계열 글을 30여편 발표하게 되었다. 그리고 로년들의 생활 칼럼 20여편도 계열로 발표하였으며 련행수기도 계열로 발표하였다. 이외 기타의 글들도 적지 않게 발표하였다.

《길림신문》의 도움이 컸기에 절기 글의 평균 조회수가 5,000을 훨씬 넘기고 최고의 조회수는 1만 7,000을 초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길림신문》에서 조직한 ‘미인송집’ 문학작품 평의활동이 있었기에 나는 영광스럽게 금상을 수여받을 수 있었다.

론문을 제외한 나의 많은 글들이 《길림신문》사 편집들의 가르침을 받아 발표될 수 있었다. 나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터득하고 배울 수 있었다. 하기에 나는 《길림신문》사를 절대 잊을 수가 없으며 언제나 마음속에 신문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그들씩 담고 있다.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노라니 그냥 《길림신문》사가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럽다.

40년간 신문사가 거둔 성적은 많기도 하고 크기도 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아가야 할 길은 멀기도 하고 험난하기도 하다. 새롭게 직면하는 형세에 맞게 신문사가 잘 꾸려져 가면서 큰 발전과 성과가 있기를 중심으로 희망한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길림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빈다.

### 전망대

## 순위만 보지 말고 상대의 허를 찌러라

전 3라운드 경기에서 1무 2패 1점을 기록하고 순위 꼴찌에 머물러있는 연변룡정커시 안팀 (이하 ‘연변팀’)이 4월 13일 저녁 7시 30분에 석가장시 유동국제체육중심에서 2승 1무 7점으로 3위를 달리고 있는 석가장공부팀 (이하 ‘석가장팀’)과 2025 화운유료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4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된다.

두 팀의 갑급리그 상호 전적을 보면 연변팀이 2승 1무 1패로 석가장팀을 앞서고 있다. 그러나 올 시즌 들어 두 팀 모두 3라운드 원정 경기를 마친 현재, 점수 차이는 무려 6점으로 벌어져 강팀과 약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정찰 그러한가?

연변팀은 제 1라운드에서 광주표범을 만나 0:4로 패하고 제 2라운드에서 청도홍사와 1:1 무승부, 제 3라운드에서 료녕철인에 1:2로 패하였고 석가장팀은 제 1라운드에서 정남감련에 2:2 무승부, 제 2, 3라운드에서 남통지운과 상해정화회룡에 각각 2:0 원정승을 거두었다. 두 팀이 상대한 팀들을 보면 광주표범과 료녕철인은 슈퍼리그 진출을 노리는 절대적인 강팀이고 청도홍사, 정남감련, 남통지운, 상해정화회룡은 하나같이 중하위권의 팀들이다.

다시 말하면 연변팀은 상대적으로 강한 팀들과, 석가장팀은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과 경기를 진행한 셈이다. 몸값이 142만유로인 석가장팀이 원정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첫 홈장전을 치르지만 실력이 막강하긴 연변팀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담보는 없다. 석가장팀이 올 시즌 만난 상대 가운데서 강팀들과의 경기를 통해 일정한 경험을 쌓은 연변팀이 최강의 상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석가장팀은 4-4-2 포메이션을 위주로 다양한 변화로 기회를 창조하는데 단크렐 (33번), 서준치 (39번), 류환 (19번), 마충충 (14번), 안기비 (10번) 등을 중심으로 하는 수비 조직력 강화로 중원을 공고히 하고 올라위 (9번)와 허샤이 (8번)로 공격선을 구축하여 상대의 수비선을 파고드는 전술을 주로 활용한다.

연변팀은 현재 김태연, 천장걸, 박세호, 왕봉을 비롯한 로장들과 서계조, 리룡, 리강 등의 발휘가 경기 운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외국 용병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다는 말과 다르다. 시즌 초기여서 상호 배합 미숙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선수들끼리 서로 마음을 합쳐 비교적 유효한 배합을 완성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원정에 강했던 지난 시즌의 연변팀으로 거듭나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꼴찌라는 순위에 비판할 필요가 없고 상대의 3위라는 순위에 기속을 필요는 더욱 없다. 프로축구에서는 오직 정신을 고도로 집중하고 한 사람같이 착착 움직이는 팀만이 살아남기 때문이다. 연변팀에 《손자병법》〈모공편〉에 나오는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己知彼, 百战不殆)라는 말과 예로부터 전해내려온 ‘협로상봉, 용자승’(狹路相逢勇者勝)이라는 전고를 추천하고 싶다.

연변팀이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빠르고 패스력과 패스반격이라는 자기 특점을 최대한 살려 중원을 생탈하고 다양한 공격 루트로 상대의 수비선을 뚫고 들어간다면 꼴찌팀이 3위 팀을 본연의 위치로 끌어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김태국기자



## 70여년전 김우레렬사의 전선 편지

렬사의 량만적인 생활태도, 혁명적인 세계관, 애뜻한 가족사랑 심금 울려

최근, 김우레 (金禹禮) 련사가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초까지 조국해방전쟁과 항미원조전쟁터에서 용감히 싸우면서 장렬히 희생되기 전까지 가족에 보낸 20여통의 전선 편지들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는데 본사기자가 단독 입수하였다.

항미원조전쟁 (1953년 3월 26일) 에서 희생된 김우레렬사는 1922년 12월 9일에 길림성 룡정시 동성공사 용성 3대 (지금의 동성용진 용성촌 3조) 에서 태어났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여 아들딸까지 둔 그는 조국을 해방하기 위하여 1947년 12월 7일 《중국조선혁명렬사락전》 제 13권 95페이지, 그러나 립시 립공증명서에는 1948년 1월 27일로 기록되어있다. ) 에 동북민주련군 (중국인민해방군 전신의 하나) 에 참군하여 제 10종대 제 30사 제 90탄에 배치받았다. 그는 부대에서 단기간의 신병 훈련을 거친 후 부대를 따라 황화산 - 철령저격전, 개원해방전투에 참가하여 강인한 혁명투지를 키웠다.

그의 소속 부대는 룡시전역과 평진전역에 참가한 후 중국인민해방군 제 4야전군 제 141사 제 423탄으로 재편성되어 강남으로 진군하였다. 1949년 3월 29일, 영광스럽게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그는 반장을 거쳐 패장으로 승급되었고 의창 - 사시전역, 장강도하작전, 천둥전역, 상서도비속청 등 전투에 참가하여 중국의 해방을 위하여 뛰어난 업적을 쌓았다.

그동안 김우레렬사는 전투 여가를 타서 장춘, 봉천 (심양), 호남 등지에서 심여통의 편지를 고향에 보냈는데 고향에서 후방 건설에 참가하고 있는 안해와 어머니에 대한 문안과 자식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전선의 승리 소식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을 경축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 연변혁명렬사릉원 련사벽에서 ‘김우레’ 할아버지의 이름을 찾아낸 손자 김춘일씨는 승모의 마음을 금치 못했다.

1950년 4월 7일에 상급의 지시에 따라 그와 부대의 조선족 장병들은 마나면 광서성에서 출발하여 하남성 정주를 거쳐 조선으로 이동, 조선인민군 제 4사단 제 18련대 (후에는 중국인민지원군 제 23군 69사와 제 20군 60사 정치문화련락부) 에 귀속되었으며 전투경험이 풍부한 그는 소대장으로 임명되었다.

1951년 봄, 한차례 전투에서 부상당한 후 후방인 신의주에서 20리 떨어진 용천군 양서면 서망리의 박병호네 집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안해 박상숙의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 그는 병이 도져 후방에 치료를 내려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후방에 있는 어머니, 가족과 동네에서 함께 해방군에 가입했던 동지들의 안부를 물었다.

이번에 공개된 김우레렬사의 생전 전선 편지들은 70여년의 오랜 세월이 흘러 색바랬지만 련사의 량만적인 생활태도와 혁명적인 세계관, 그리고 애뜻한 가족사랑을 읽어볼 수 있는 따뜻한 내용들로 심금을 울린다.

날자 미상 (장춘해방전투 이후로 추정됨):



▲ 김우레렬사가 70여년전에 집에 보낸 전선 편지들

세월은 류수같이 가는데 그동안 가내가 무고한지? 그리고 아이들도 잘 자라는지? 나는 길림에서 편지한 후 소식을 전하지 못하였지만 건강한 몸으로 전방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날이 전승하고 있고 국민당은 아침 풀잎의 이슬같이 스러져가고 우리는 참 재미있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하 략)

민국 38년 1월 3일: 신년을 맞이하여 전제 식구들에게 건강을 축복합니다. 본인은 여전히 무고도일하니 안심하십시오. 우리들은 동북을 출발한 후 화북땅에 도착하여 각지에 있는 적을 다 없애버리고 중국에서 두번째로 큰 전진을 해방하였습니다. (이하 략)

1949년 11월 2일: 농촌에서 제일 분명한 계절에 아울러 전방 지원에 대단히 곤란한 줄 알고 있으며 가내 모두 무사한지? 본인은 전선에서 출발한 후 넓은 화북과 화중 지구를

번지 박병호 맥에서 병치료중인데 병이 나오면 인차 전방에 나가게 될 것이요. (이하 략)

1951년 7월 5일: ... 나는 이곳에서 2개월간 치료를 받아 병이 완전히 나아져 전방에 가게 되었소. (중략) 아무쪼록 아이들 공부를 잘 시키고 금택이가 일학년에서 우등생으로 공부하였다는 것은 기쁘나 이것에 만족할 것 없이 해마다 그와 같은 성적을 내야 하겠소. (이하 략)

1951년 9월 30일: 추수 계절에 어린이들이 데리고 얼마나 수고 많겠소? 그리고 동네 여러분 다 무고하옵시며 서구동의 집안도 다 무고하옵시? 내가 6월에 (당신이) 룡막염으로 인하여 수술하였다는 편지를 보고 집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고 있소. 병으로 고생하면서 아이들 공부를 열심히 시킨다는 편지를 보고 감사를 금할 수 없소. 아무쪼록 병을 잘 치료하여 자기 몸이 든든해야 하니 금액이 곤란하면 금액이 될 만한 것을 팔아서라도 병을 완치하오. (이하 략)

1952년 3월 27일: (전략) 시간 집안 식구들은 별고 없는지? 나는 지금 전선에서 몸무고히 잘 싸우고 있소. 이전에 병으로 고생한다는 편지는 수차 받아보았지만 참으로 도움은 없었고 도와줄래야 어떻게 할 여지가 없었소. 아무쪼록 병을 잘 치료하여 과거 고생하던 이야기를 하면서 잘살기요... (이하 략)

이처럼 가족을 중히 여기고 삶을 평범적으로 대하였던 김우레렬사는 “1953년 3월 26일, 최전선 (평강군 금곡리) 에서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다가 중요한 전투임무를 승리적으로 완성하고 적의 폭격으로 희생되었다.”(조선인민군총정치부, 중국인민지원군련락부 조급당위원장 한순호가 보낸 사망통지서에서)

렬사가 희생된 후 평강군 금곡리 앞산에서 부대와 지방의 인민대표들이 참석해 추도식을 거행하여 련사의 업적을 기리었다.

김우레렬사처럼 항미원조전쟁에서 희생된 연변 출신 련사는 7,621명이다. 토지혁명시기와 항일전쟁시기, 해방전쟁시기, 사회주의 건설시기의 련사까지 합하면 연변에는 총 1만 6,812명의 련사와 1,010여명의 무명렬사가 있다. 연변에서 유일한 국가급 애국주의 교양기자인 연변혁명렬사릉원 (연변혁명기념관) 에 가면 우리는 련사들의 사적을 학습할 수 있으며 련사벽에서 그들의 이름을 또렷이 확인할 수 있다.

혁명렬사들의 감동적인 영웅사적은 길이 찬송되어야 하고 그들의 숭고한 애국주의정신과 혁명영웅주의 희생정신은 길이 따라배워야 하며 그들의 백절불굴, 간고분투의 혁명전통은 영원히 계승 발양되어야 한다.



/ 김태국기자

## 연변개미힘아동 자원봉사단 청명절 련사 추모



4월 4일 청명절, 연변개미힘아동자원봉사단은 연변혁명렬사릉원에서 ‘선열들을 기리며서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붉은 유전기를 함께 전승하자’는 주제의 추모 활동을 거행했다. 80여명 자원봉사자들은 혁명렬사들을 묵념하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였으며 혁명렬사기념비에 헌화하고 혁명렬사기념관을 참관하는 등 실천 가운데서 인성 깊은 애국주의교양을 받았다. / 리군광